

# 朝鮮時代 省察用 宮中屏風에 대한 연구

## -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민덕식\*

- 
- I. 머리말
  - II. 文獻 資料
    - 1. 글씨 병풍
    - 2. 그림 병풍
  - III. 洪範 屏風
    - 1. 狀態
    - 2. 內容
    - 3. 書者
    - 4. 摹刻 時期
  - IV. 맺음말
- 

## I. 머리말

이 글에서 다루려는 省察用 宮中屏風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帝王이 修身을 통해 至治에 이르러 王道政治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활용되었던 병풍이었다. 이러한 궁중병풍은 글씨병풍과 그림병풍으로 나누

---

\*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어 볼 수 있다.

우선 글씨병풍 중에서는 제왕의 龜鑑이 되는 『書經』의 洪範篇을 쓴 병풍이 가장 주목되는 병풍이라고 볼 수가 있다. 내용으로 보면 조선 왕조를 개국한 초기에 적합한 병풍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충북대학 교 박물관에는 落帙로 전하는 홍범병풍이 소장되어 있다. 이 병풍에 대해 일찍이 故 任昌淳 선생께서는 임진왜란 이전의 궁중병풍이라고 감정을 내린 바 있었다. 왕의 좌우에 쳤던 이러한 조선시대의 글씨병풍은 國立故宮博物館에도 두 점만이 전할 정도로 귀중한 병풍이다.

그림 병풍 중에는 『詩經』의 豳風七月篇을 그림으로 그린 빈풍칠월도와, 빈풍칠월도를 보다 체계화하여 그린 耕織圖屏風이 주목된다. 농사는 나라의 중요한 바탕이 되며, 예로부터 훌륭한 군주는 누구나 농사일에 힘을 썼다. 홍범편에서도 8가지 政事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는 일인 食을 첫째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통치자로 하여금 농부와 누에치는 이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여 일반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근검절약하고 좋은 정치를 하도록 교훈을 주는 그림인 경직도가 많이 사용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세종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 것인데, 農事하는 것은 옷과 먹는 것의 근본으로서 王者의 정치에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오직 그것은 백성을 살리는 天命에 관계되는 까닭에 천하의 지극한 勞苦를 服務하게 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성심으로 지도하여 거느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써서 농사에 종사하여 그 生生之樂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sup>1)</sup>

실제로 세종은 농사짓는 일의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알고자 後苑에다 논 두서너 頃을 개간하여 民事의 이르고 늦음을 보았는데, 5년 4월에는 兩殿이 翠露亭에 나아가서 논이랑에 새싹이 피고 비가 흠족한 것을 보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 되고 음식은 백

1) 『世宗實錄』 권105, 世宗 26년 윤7월 壬寅.

성의 하늘이 되니, 내가 감히 농사짓는 일을 버리겠는가. 내가 게을러 일에 거칠거나 일을 버려두고 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경들과 더불어 하늘의 명을 받들어 그 뜻을 백성에게 알릴 뿐이다”라고 하였다.<sup>2)</sup>

또 성종도 “백성의 근본은衣食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의식의 근원은農桑에 있다. 추울 때 같고 더울 때는 김매는 것은 농사일의 심한 괴로움이고, 가시를 뚫고 들어가서 뽕을 따는 것은 누에치는 수고로움이 더욱 심한 것”이라고 하였다.<sup>3)</sup>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성종은 5년 정월에 직접 東郊에 나아가 몸소 쟁기를 잡았으며,<sup>4)</sup> 6년 정월에는 처음으로 籍田親耕을 행하고,<sup>5)</sup> 8년과 24년 3월에도 南畝에서 親耕을 하기도 하였다.<sup>6)</sup> 또 18년 정월 보름에는 궁궐의 後苑에 颯風七月의 형상을 갖추어 假農作(內農作)을 행하여 풍년을 기원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성찰용 궁중병풍에 대한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고,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홍범병풍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 기초조사인 만큼 앞으로 미술사·사상사·정치사적인 연구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 II. 文獻 資料

### 1. 글씨 병풍

唐나라 憲宗은 역대의 귀감이 될 만한 말을 뽑아서 병풍에 써서 놓고 보며 성찰을 하였고,<sup>7)</sup> 고려 肅宗도 洪灌에게 명하여 會慶殿 병풍에

2) 『世祖實錄』 권16, 世祖 5년 4월 癸酉.

3) 『成宗實錄』 권78, 成宗 8년 3월 辛巳.

4) 『成宗實錄』 권78, 成宗 8년 3월 辛巳. 일찍이 고려 仁宗도 籍田에서 친히 밭갈이 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高麗史』 권17 世家17 仁宗 22년 정월 乙亥).

5) 『成宗實錄』 권51, 成宗 6년 정월 辛酉.

6) 『成宗實錄』 권275, 成宗 24년 3월 丙戌.

7) 『中宗實錄』 권2, 中宗 2년 정월 庚寅.

『書經』의 無逸篇을 쓰게 하여 성찰하였으며,<sup>8)</sup> 熙宗도 宣慶殿과 大觀殿에 있는 병풍이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앉고 더러워졌다하여 명필인 崔怡(瑒)에게 선경전 병풍에는 홍범을, 대관전 병풍에는 무일편을 쓰도록 하였다.<sup>9)</sup> 또 최이는 자기 집에서 全幅 황색 綾絹을 짜서 康安殿 후벽 障子를 장식하고, 任暉를 시켜 무일편을 쓰게 하였다.<sup>10)</sup> 공민왕은 동왕 19년 11월에 전 예의판서 韓脩에게 무일편을 써서 정사를 보는 報平廳에 게시하라고 명하고,<sup>11)</sup> 공양왕도 즉위 초기에 대언 成石碻에게 무일편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sup>12)</sup>

조선의 왕들도 龜鑑이 될 만한 말들을 병풍에 써서 놓고 성찰을 하였다. 즉 조선 개국 초인 태조 6년 8월에 태조는 좌상기상시 曹瑍에 명하여 홍범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sup>13)</sup> 홍범은 『서경』 周書의 홍범편에 들어 있다. 홍범은 천하를 다스리는 大法이다. 禹 임금의 아버지 鯀이 홍수를 다스리는 중임을 받았으나, 홍수를 막는 데 물의 성질을 따르지 않고 우주의 근본 원리인 五行의 질서마저 어지럽혔다. 이에 上帝가 진노하여 곤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인 홍범 9개 조목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人倫의 뒤흔음이 깨지고 세상은 혼란하여 곤은 죄를 받아 죽었다.

아들인 우 임금이 곤을 계승하여서는 홍수를 다스리는데 물의 성질을 좇아 다스려서 홍수를 잘 막았기 때문에 상제가 우 임금에게 홍범 9개 조목을 내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즉, 우 임금이 9년에 걸친 治水

8) 『高麗史』 권12 世家12 肅宗 8년 3월 己丑.

9) 『高麗史』 권21 世家21 熙宗 2년 4월 甲子.

10) 임환은 大卿 任景純의 아들로 글씨를 잘 써서 최이가 사랑하여 양자로 삼고, 성을 崔氏로 고치고 장군 벼슬을 주었다(『高麗史』 권129 列傳 42 叛逆3 崔忠獻 附 崔怡傳). 이처럼 당대의 명필로 神品四賢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최이가 임환을 높이 평가한 것을 보면, 임환도 당대에 대단한 명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11) 『高麗史』 권42 世家42 恭愍王 19년 11월 乙巳.

12)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2년 6월 辛巳.

13) 『太祖實錄』 권12, 太祖 6년 8월 癸巳. 태조 6년 9월에는 左承旨 李文和에게 명하여 洪範을 講하게 하였다(『太祖實錄』 권12, 太祖 6년 9월 丁巳).

事業에 성공하자, 등에 글자가 씌어 있는 神龜가 洛水에서 나왔다고 하며 이것이 洛書라는 것으로 홍범의 기원이 되었다. 우 임금의 이것을 차례로 정리하여 9개 조목으로 하였다고 하며, 周 武王이 商을 이기고 즉위 13년에 箕子를 방문하여 天道를 묻자, 이때 기자가 이 홍범을 말해 주었다고 전한다.<sup>14)</sup>

조선초기의 왕들은 조선왕조 개창의 분위기에 맞추어 홍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상적인 경연 이외에도 태조 6년에는 좌승지 李文和에게 명하여 홍범을 강하게 하고,<sup>15)</sup> 태종 16년 7월에도 태종은 廣延樓에서 趙末生을 불러 홍범의 음양의 이치를 강하도록 하였다.<sup>16)</sup> 또 세종은 즉위년 12월에 성균관 명륜당에서 행대사성 趙庸에게 홍범의 강을 들었고,<sup>17)</sup> 세조도 원년 9월에 명륜당에서 성균관 사성 金鈞와 집현전 부제학 金禮蒙에게 河圖와 洛書의 강을 들었다.<sup>18)</sup> 성종도 13년 9월에 宣政殿에서 홍문관 직제학 李命崇 등 13인을 불러서 홍범편을 강하게 하였다.<sup>19)</sup>

정종 원년 정월에 경연에서 李詹이 程子の 四箴(四勿箴)을 마땅히 좌우에 써 두어 보기에 편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하자, 정종은 이를 윤택하였다.<sup>20)</sup> 程頤의 사잡은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21)</sup> 사잡 중 視

14) 우현민, 1976, 『書經』, 을유문화사, 367~369쪽.

15) 『太祖實錄』 권12, 太祖 6년 9월 丁巳.

16) 『太宗實錄』 권32, 太宗 16년 7월 戊戌.

17) 『世宗實錄』 권2, 世宗 즉위년 12월 丙子.

18) 『世祖實錄』 권2, 世祖 원년 9월 壬午.

19) 『成宗實錄』 권146, 成宗 13년 9월 甲子.

20) 『定宗實錄』 권1, 定宗 원년 정월 庚辰.

21) 『二程集』 권9, 四箴并序. “顏淵問克已復禮之目. 夫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 身之用也. 由乎中而應乎外 制於外 所以養其中也. 顏淵事斯語 所以進於聖人 後之學聖人者 宜服膺而勿失也. 因箴以自警.”

視箴

心兮本虛 應物無迹 操之有要 視為之則 蔽交於前 其中則遷 制之於外 以安其內 克已復禮久而誠矣.

聽箴

人有秉彝 本乎天性 知誘物化 遂亡其正 卓彼先覺 知止有定 閑邪存誠 非禮勿聽.

箴은 외부에서 제어하여 非禮를 보지 못하게 하여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廳箴은 외부의 邪를 막고 내부의 誠을 보존하여 禮가 아니면 듣지 않아 마음이 항상 떳떳한 성품의正大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言箴은 법도에 맞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며, 발언할 적에 조급함과 망령됨을 금해야 한다는 것이고, 動箴은 올바른 도리를 따르면 여유가 있게 되고 사적인 욕망을 따르면 위태로워지니 다급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생각해서 스스로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태종 3년 5월에 태종은 尙瑞司에 명하여 『大學衍義』의 序文과 表를 써서 병풍을 만들어 보았다.<sup>22)</sup> 또 『대학연의』 중에서 宮闈가 본받고 경계할 만한 구절을 써서 宮人들을 가르쳤다.<sup>23)</sup> 『대학연의』는 송나라 眞德秀의 『大學』 주석서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종 3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학문을 하는 선비들에게는 필수과목이었다. 이 책이 이때 간행되었기 때문에 태종이 이처럼 관심을 보인 것이다.

세종 12년 7월에 세종은 大寶箴, 『서경』의 無逸,<sup>24)</sup> 立政, 說命, 旅獒篇과 역대 흥망의 사적을 쓴 글씨 족자를 여섯 代言에게 나누어 하사 하였다.<sup>25)</sup> 여기서 箴이란 사람의 잘못을 諷諫하거나 規戒하는 말을 의미한다. 잠은 경계하는 목적은 같아도 경계한 대상에 따라서 남을 경계하는 글을 官箴, 자신을 경계하는 글을 私箴이라고 한다. 관점으로 는 張藎古의 대보잠이 표본이고,<sup>26)</sup> 사잠은 韓愈의 遊言行箴, 柳宗元의

言箴

人心之動 因言以宣 發禁躁妄 內斯靜專 矧是樞機 興戎出好 吉凶榮辱 惟其所召 傷易則誕 傷煩則支 已肆物忤 出悖來違 非法不道 欽哉訓辭.

動箴

哲人知幾 誠之於思 志士厲行 守之於為 順理則裕 從欲惟危 造次克念 戰兢自持 習與性成 聖賢同歸”.

22)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5월 丁酉.

23) 『中宗實錄』 권70, 中宗 26년 3월 丁未.

24) 逸은 逸樂으로 人君이 크게 경계해야 할 점인데, 成王이 처음으로 정치를 맡게 되었을 때 周公은 이 점을 염려하여 無逸篇을 지어 성왕을 가르쳤다고 한다.

25) 『世宗實錄』 권49, 世宗 12년 7월 丁未.

26) 『古文眞寶大全』 卷2, 後集 “今來古往 俯察仰觀 惟辟作福 爲君實難. 主善

憂箴, 歐陽修의 暗室箴, 程頤의 四箴이 유명하다. 대보잠의 大寶는 천자의 자리를 말하며, 장운고가 당 태종 즉위 초에 中書省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規鑑으로써 지어 태종에게 바쳤다고 전한다. 대보잠에서는 천자의 자리는 막중한 것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規誡하였다.

성종 원년 4월에는 垂簾聽政을 하고 있던 대왕대비 貞熹王后가 흰 병풍을 승정원에 내리고 傳旨하여 경연관으로 하여금 예전의 권면하고 경계가 될 만한 일을 가려 써서 御座의 좌우에 두고 아침저녁의 觀省에 대비하라고 하였다.<sup>27)</sup> 이 때 정희왕후는 14세로 아직 어린 성종을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때 흰 병풍에는 전 지중추부사 成任에 의해 太公<sup>28)</sup>의 丹書, 정

天之下 處王公之上 任土貢其所求 具察陳其所唱. 是故 恐懼之心日弛 邪僻之情轉放 豈知事起乎所忽 禍生乎無妄. 固以聖人受命 拯溺亨屯 歸罪於己 因心於民. 大明無私照 至公無私親. 故以一人治天下 不以天下奉一人. 禮以禁其奢 樂以防其佚. 左言而右事 出警而入蹕. 四時調其慘舒 三光同其得失. 故身爲之度 而聲爲之律. 勿謂無知 居高聽卑 勿謂何害 積小就大. 樂不可極 樂極生哀 欲不可縱 縱欲成災. 壯九重於內 所居不過容膝 彼昏不知 瑤其臺而瓊其室. 羅八珍於前 所食不過適口 唯狂罔念 丘其糟而池其酒. 勿內荒於色 勿外荒於禽 勿貴難得貨 勿聽亡國音. 內荒伐人性 外荒蕩人心 難得之貨侈亡國之音淫. 勿謂我尊而傲賢慢士 勿謂我智而拒諫矜己. 聞之夏后 據饋頻起 亦有魏帝 牽裾不止. 安彼反側 如春陽秋露 巍巍蕩蕩 恢漢高高度 撫茲庶事 如履薄臨深 戰戰慄慄 用周文小心. 詩之不識不知 書之無偏無黨. 一彼此於胸臆 損好惡於心想. 衆棄而後加刑 衆悅而後行賞. 弱其強而治其亂 伸其屈而直其枉. 故曰 如衡如石 不定物以限 物之懸者 輕重自見 如水如鏡 不示物以情 物之鑑者 妍媸自生. 勿渾渾而濁 勿皎皎而清 勿汶汶而闇 勿察察而明. 雖冕旒蔽目而視於未形 雖黈纊塞耳而聽於無聲. 縱心乎湛然之域 遊神於至道之精. 知之者應洪纖而效響 酌之者隨淺深而皆盈. 故曰 天之經 地之寧 王之貞. 四時不言而代序 萬物無言而化成. 豈知帝力而天下和平. 吾王撥亂 截以智力 民懼其威 未懷其德. 我皇撫運 扇以淳風 民懷其始 未保其終. 爰述金鏡 窮神盡聖 使人以心 應言以行. 包括治體 抑揚詞令 天下爲公 一人有慶. 開羅起祝 援琴命詩 一日二日 念茲在茲. 惟人所召 自天祐之. 諍臣司直 敢告前疑”.

27) 『成宗實錄』 권4, 成宗 원년 4월 己酉.

28) 太公은 呂尙인 太公望을 지칭한다. 周武王은 즉위하자 태공망을 師로 삼고 선왕인 文王의 緒業을 힘쓰도록 하였다(『史記』 권4 周本紀4 武王 즉위 조). 무왕을 도와 상나라 紂王을 멸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齊나라 제후에 봉해졌다(『史記』 권32, 齊太公世家 2).

자의 사잠, 당나라 李紳·聶夷中·李潛의 傷田家詩가 쓰여 졌다.<sup>29)</sup> 이 중에서 단서는 태공이 武王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것이다.<sup>30)</sup> 또 섭이 중의 二月糶新穀詩는 2월에는 新絲를 先賣하고, 5월에는 新穀을 선매 하는데, 눈앞의 종기는 치료했으나 마음속의 살을 깎는다는 농가의 고달픈 생활을 표현한 상전가시이다. 태종은 효령대군 이하의 훈친과 재상들이 모인 연회에서 이 시를 외우게 하기도 하고,<sup>31)</sup> 영조는 宣陵을 展謁함에 길을 닦을 때 혹시라도 길옆의 버를 해칠까 걱정하여 직접 이 시를 읊기도 하였다.<sup>32)</sup>

성종 14년 3월에 성종은 대신들에게 “내가 대보잠을 써서 宣政殿에 걸어두고 항상 보면서 반성하고자 하니 경들도 待漏院記<sup>33)</sup>를 전해 써서 이를 살펴보고 경계로 삼도록 하라”라고 하였는데,<sup>34)</sup> 10월에 가서 성종은 趙孟頫의 글씨를 모방하여 당나라 장온고의 대보잠을 써서 板에 새겨 선정전에 달고 대루원기를 써서 殿門 바깥벽에 달도록 명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여 “너희들은 대루원기를 승정원 벽에 달아 놓고 스스로 보며 반성하라”라고 하였다.<sup>35)</sup> 11월에도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임금이 거울삼아 경계할 것은 대보잠보다 적절한 것이 없고, 신하가 경계하고 살필 것은 대루원기보다 적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미 새겨서 걸게 하였는데, 또 內宦에게 戒勅하여 글이 능한 자로 하여금 그 뜻을 지어서 揭示하게 하라”라고 명하였다.<sup>36)</sup> 15년 4월에도 성종은 대보잠을 새겨서 便殿에 걸게 하여 스스로 경계하였다.<sup>37)</sup>

또 성종 24년 12월에는 경상감사 柳攄가 十漸疎를 병풍에 써서 바

29) 『成宗實錄』 권4, 成宗 원년 4월 甲寅.

30) 丹書에는 敬勝怠者吉 怠勝敬者滅 義勝欲者從 欲勝義者凶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小學諸家集註』 권3, 敬身3 內篇).

31) 『世宗實錄』 권2, 世宗 즉위년 11월 壬戌.

32) 『英祖實錄』 권56, 英祖 18년 8월 癸巳.

33) 待漏院記는 송나라 王禹偁이 지은 것으로 집정자의 규감이 된다.

34) 『成宗實錄』 권152, 成宗 14년 3월 乙巳.

35) 『成宗實錄』 권159, 成宗 14년 10월 辛未.

36) 『成宗實錄』 권160, 成宗 14년 11월 辛丑.

37) 『燕山君日記』 권2, 燕山君 원년 정월 丁酉. 成宗大王 行狀.

쳤다.<sup>38)</sup> 십점소는 直言極諫으로 유명했던 魏徵이 貞觀 13년(639)에 당 태종에게 올린 열 가지 경계로 군주가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서 큰 화가 된다는 것으로, 검소하고 德音을 듣는 것 등 열 가지 일이 들어 있다.<sup>39)</sup>

연산군 원년 정월에 과평부원군 尹弼商은 『서경』의 무일편과 『시경』의 칠월편은 그 말이 이 보다 더 긴요한 것이 없어서 진실로 임금으

38) 『成宗實錄』 권285, 成宗 24년 12월 戊子.

39) 『新唐書』卷97, 列傳 第22 魏徵 “臣奉侍帷幄十餘年 陛下許臣以仁義之道 守而不失 儉約朴素 終始弗渝. 德音在耳 不敢忘也. 頃年以來 寢不克終. 謹用條陳 裨萬分一. 陛下在貞觀初 清淨寡欲 化被荒外. 今萬里遣使 市索駿馬 并訪怪珍. 昔漢文帝卻千里馬 晉武帝焚雉頭裘. 陛下居常論議 遠輩堯舜 今所爲 更欲處漢文 晉武下乎. 此不克終一漸也. 子貢問治人. 孔子曰 懷乎若朽索之馭六馬. 子貢曰 何畏哉. 對曰 不以道導之則吾懼也 若何不畏 陛下在貞觀初 護民之勞 煦之如子 不輕營爲. 頃既奢肆 思用人力 乃曰 百姓無事則易驕 勞役則易使. 自古未有百姓逸樂而致傾敗者 何有逆畏其驕而爲勞役哉. 此不克終二漸也. 陛下在貞觀初 役己以利物 比來縱欲以勞人. 雖憂人之言不絕於口 而樂身之事實切諸心. 無慮營構 輒曰 弗爲此 不使我身. 推之人情 誰敢復爭. 此不克終三漸也. 在貞觀初 親君子 斥小人. 比來輕褻小人 禮重君子. 重君子也 恭而遠之 輕小人也 狎而近之. 近之莫見其非 遠之莫見其是. 莫見其是 則不待問而疏 莫見其非 則有時而昵. 昵小人 疏君子 而欲至治 非所聞也. 此不克終四漸也. 在貞觀初 不貴異物 不作無益. 而今難得之貨雜然並進 玩好之作 無時而息. 上奢靡而望下朴素 力役廣而冀農業興 不可得已. 此不克終五漸也. 貞觀之初 求士如渴 賢者所學 卽信而任之 取其所長 常恐不及. 比來由心好惡 以衆賢舉而用 以一人毀而棄 雖積年任而信 或一朝疑而斥. 夫行有素履 事有成跡 一人之毀未必可信 積年之行不應頓虧. 陛下不察其原 以爲臧否 使讒佞得行 守道疏問. 此不克終六漸也. 在貞觀初 高居深拱 無田獵畢弋之好. 數年之後 志不克固 鷹犬之貢 遠及四夷 晨出夕返 馳騁爲樂 變起不測 其及救乎. 此不克終七漸也. 在貞觀初 遇下有禮 群情上達. 今外官奏事 顏色不接 問因所短 詰其細過 雖有忠款 而不得申. 此不克終八漸也. 在貞觀初 孜孜治道 常若不足. 比恃功業之大 負聖智之明 長傲縱欲 無事興兵 問罪遠裔. 親狎者阿旨不肯諫 疏遠者畏威不敢言. 積而不已 所損非細. 此不克終九漸也. 貞觀初 頻年霜旱 畿內戶口並就關外 攜老扶幼 來往數年 卒無一戶亡去. 此由陛下矜育撫寧 故死不攜貳也. 比者疲於徭役 關中之人 勞弊尤甚. 雜匠當下 顧而不遣. 正兵番上 復別驅任. 市物襁屬於塵 遞子背望於道. 脫有一穀不收 百姓之心 恐不能如前日之怙泰. 此不克終十漸也. 夫禍福無門 惟人之召 人無孽焉 妖不妄作. 今旱暵之災 遠被郡國 凶醜之孽 起於畿下 此上天示戒 乃陛下恐懼憂勤之日也. 千載休期 時難再得 明主可爲而不爲 臣所以鬱結長歎者也”.

로서 마땅히 본받아야한다고 하자,<sup>40)</sup> 2월에는 전교하여 칠월편과 무일편을 써서 올리게 하고,<sup>41)</sup> 이를 병풍에 쓰도록 명하였다.<sup>42)</sup>

중종 원년 10월에 전교하여 帝王 治本의 요긴한 도리를 병풍이나 안석에 써 놓고 法戒 삼을 만한 것을 적어서 아뢰라고 명하고,<sup>43)</sup> 11월에는 정원에 흰 병풍을 내려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 사람의 勸戒로서 거울삼을 만한 글을 써서 올리라고 하였다.<sup>44)</sup>

중종 2년 정월에도 弘文館에 흰 병풍을 내려 보내면서 箴戒의 말을 써서 들이라고 명하자, 崔淑生 등이 九箴을 써서 바쳤는데, 正心箴, 勤學箴, 敬天箴, 嚴內治箴, 崇正道箴, 辨賢邪箴, 納諫諍箴, 務儉約箴, 慎刑賞箴이었다. 글 짓고 글씨 쓴 이의 성명을 병풍 왼쪽에 쓰도록 하였는데, 최숙생, 成夢井이 글을 짓고, 金希壽가 글씨를 썼다. 중종은 文辭가 아름답고 書法도 아름답다고 하여 글을 지은 최숙생과 성몽정에게 鹿皮 두 벌을, 글씨를 쓴 김희수에게는 활 한 개를 내렸다.<sup>45)</sup> 왕에게 올리는 글씨나 그림은 성명이나 도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중종은 글 짓고 글씨 쓴 이의 성명을 병풍 왼쪽에 쓰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글씨를 쓴 김희수는 도승지, 대사헌, 경상감사,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낸 문신으로 「戒酒文」, 「領相金壽童碑」, 「領相成希顏碑」 등을 남긴 명필로 해서에 능하였다.

윤 정월에도 흰 병풍을 정원에 내려 보내고 고금의 箴警이 되는 말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sup>46)</sup> 11월에는 홍문관이 대보잠, 무일도, 王巖叟의 洪範三德論을 올리며 아뢰기를 “대보잠과 무일도는 경계를 삼기에 가장 적절하며, 삼덕론은 祖宗께서 항상 보고 느끼던 것이니 좌우에 두고 유의하시라”고 하자, 중종은 진상한 족자가 매우 내 마음에 드니

40) 『燕山君日記』 권2, 燕山君 원년 정월 辛亥.

41) 『燕山君日記』 권3, 燕山君 원년 2월 丁巳.

42) 『燕山君日記』 권3, 燕山君 원년 2월 己未.

43) 『中宗實錄』 권1, 中宗 원년 10월 辛亥.

44) 『中宗實錄』 권1, 中宗 원년 11월 己卯.

45) 『中宗實錄』 권2, 中宗 2년 정월 庚寅.

46) 『中宗實錄』 권2, 中宗 2년 윤정월 己未.

자리 오른쪽에 걸겠다고 하였다.<sup>47)</sup>

중종 4년 12월에 전교하기를 대보잠과 대루원기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경계하는 글이니 새로 새겨서 경복궁과 창덕궁에 걸게 하였다.<sup>48)</sup>

중종 6년 11월에도 妃嬪이 경계로 삼을 만한 말을 써 넣어 만든 后妃可戒屏風 10폭을 만들어 바칠 것을 명하고, 이어서 帝王可戒屏風에 대해 이르기를 이 병풍은 8폭 뿐이니 2폭을 더 채워서 바치라고 명하였다.<sup>49)</sup> 12월에도 글씨에 능한 문신을 가려, 제왕이 경계할 시를 병풍에 써서 올리라고 명하였다.<sup>50)</sup>

중종 7년 4월에는 정원에 전교하여 歷代后妃鑑戒詩序를 속히 병풍에 써서 올리라고 명하고,<sup>51)</sup> 12월에는 홍문관에 전교하여 “내가 병풍에다 써서 두고 보려고 하니, 고금의 서적이나 역사 중에 있는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뽑아서 올리라”라고 하였는데,<sup>52)</sup> 이 글씨 병풍이 마련되자 정원에 내려 제목을 써서 들이라고 하였다.<sup>53)</sup>

또 중종 14년 3월에는 직제학 金絿에게 명하여 程子の 四箴을 병풍에 써서 들이라고 명하였다.<sup>54)</sup> 글씨를 쓴 김구는 己卯名賢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鍾王書體를 익혀 仁壽體라는 일가를 이루었던 명필이었다.<sup>55)</sup> 중종 32년에는 劉向이 지은 『說苑』의 臣術篇을 새겨 대루원기와 함께 걸어 놓고 경계토록 하라고 명하였다.<sup>56)</sup>

인종은 13세에 宮僚로 하여금 程子の 視聽言動에 대한 四箴과 范浚의 心箴, 『서경』의 無逸篇, 『시경』의 豳風七月篇을 쓰게 하여 이를 좌우에 진열해 놓고 보면서 반성하였다.<sup>57)</sup> 또 침전에 戒言屏風 등을 향

47) 『中宗實錄』 권4, 中宗 2년 11월 壬寅.

48) 『中宗實錄』 권10, 中宗 4년 12월 癸卯.

49) 『中宗實錄』 권14, 中宗 6년 11월 辛未.

50) 『中宗實錄』 권14, 中宗 6년 12월 庚寅.

51) 『中宗實錄』 권15, 中宗 7년 4월 壬午.

52) 『中宗實錄』 권17, 中宗 7년 12월 壬子.

53) 『中宗實錄』 권18, 中宗 8년 5월 戊辰.

54) 『中宗實錄』 권35, 中宗 14년 3월 甲寅.

55) 閔德植, 2011, 「景祐樂議 書屏의 史料의 價値」, 『忠北史學』 26, 29~31쪽.

56) 『中宗實錄』 권86, 中宗 32년 11월 癸未.

57) 『明宗實錄』 권1, 明宗 즉위년 7월 丁亥. 仁宗의 行狀.

상 진실하여 놓고 성찰하였다.<sup>58)</sup> 어릴 적부터 착실했던 인종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인종은 3세에 글을 배워 音義를 알았고, 중종이 사랑하고 기특히 여겨 일찍이 侍講院을 두고 가르치게 하고, 중종이 친히 箴을 지어서 가르쳤는데 늘 마음에 간직하여 잊지 않고 장성해서는 손수 병풍에 써서 깊이 생각하며 보았다고 한다.<sup>59)</sup> 이 중에서 송나라 범준의 심잠<sup>60)</sup>은 마음을 경계한 글이라는 뜻으로 朱子가 일찍이 『孟子集註』 告子 上의 章下註에 수록하였다. 심잠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었는데, 인조 20년 10월에는 부교리 姜栢年이 심잠을 지어 인조에게 올리고,<sup>61)</sup> 숙종 3년 8월에도 교리 李鳳徵이 養心箴을 숙종에게 올리고,<sup>62)</sup> 영조 7년 정월에도 부교리 金尙星이 양심잠을 製進하여 聖學을 면려하고,<sup>63)</sup> 영조 18년 6월에도 교리 尹光毅가 심잠을 지어 영조에게 올리고,<sup>64)</sup> 또 영조 자신도 심잠을 지어 신료들에게 보이기도 하였다.<sup>65)</sup>

명종 원년 4월에 정원에 전교하기를 “朝講에서 趙士秀가 『시경』의 칠월편과 抑戒篇을 병풍에 써두고 관람하도록 아뢰었기에 內藏된 것

58) 『明宗實錄』 권1, 明宗 즉위년 7월 辛巳.

59) 仁宗 誌文. 인종은 효성이 지극하였다. 중종도 자식 사랑이 남달랐는데, 동궁전에 불이나자 맨발로 달려와서 세자인 인종을 애타게 부르며 울었다는 일화가 전한다. 동궁전의 화재는 중종 38년 정월 7일 밤 삼경에 일어났는데, 대내와 연결된 承華堂을 철거하여 大內로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하면서 불길을 잡았다. 세자는 대내로 피하여 중종과 함께 있어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中宗實錄』 권100, 中宗 38년 정월 壬子).

60) 『心經附註』 “茫茫堪輿 俯仰無垠. 人於其間 眇然有身 是身之微 太倉稊米 參爲三才 曰惟心爾. 往古來今 孰無此心 心爲形役 乃獸乃禽. 惟口耳目 手足動靜 投間抵隙 爲厥心病. 一心之微 衆欲攻之 其與存者 嗚呼幾希.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 ; 成百曉, 2002, 『譯註心經附註』, 傳統文化研究會, 363~367쪽.

61) 『仁祖實錄』 권43, 仁祖 20년 10월 辛丑.

62) 『肅宗實錄』 권6, 肅宗 3년 8월 癸亥.

63) 『英祖實錄』 권29, 英祖 7년 정월 甲申.

64) 『英祖實錄』 권55, 英祖 18년 6월 乙卯.

65) 『英祖實錄』 권55, 英祖 18년 6월 乙巳. 영조 34년 7월에는 居廬廳에서 金重正에게 명하여 『心經附註』와 序를 읽게 하고, 鄭遠達에게 『心經』의 찬을 읽게 하였다(『英祖實錄』 권92, 英祖 34년 7월 壬辰).

을 살펴보니 칠월편을 쓴 병풍만 있고 역계편을 쓴 병풍은 없으니, 그것을 써서 병풍으로 만들어 들이라”라고 명하였다.<sup>66)</sup> 또 전교하기를 “칠월편을 쓴 병풍은 內府에 간직되어 있는데 무일편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없거든 역계와 함께 병풍에 써서 올리도록 하라”라고 명하였는데,<sup>67)</sup> 金魯<sup>68)</sup>에게 역계를 써서 병풍을 만들어 들이라고 명하여, 병풍이 꾸며져 올려졌다.<sup>69)</sup> 5월에는 다시 전교하여 抑戒書屏은 이미 만들어 올렸는데, 무일편은 內藏의 책상에 새겨져 있어 그것을 보고 성찰할 수 있으니 다시 써서 올릴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sup>70)</sup> 12월에는 花城監 顯祖가 무일편을 쓴 작은 병풍을 바쳤다.<sup>71)</sup>

또 명종 9년 10월에는 사정전 御間 남쪽의 앞서 대보잠을 걸었던 벽에 그전처럼 대보잠을 서서 걸도록 명하고,<sup>72)</sup> 11월에는 선수도감에서 아뢰기를 “康寧殿과 丕顯閣은 정사하는 곳이니 抑戒<sup>73)</sup>와 무일편을 그전처럼 써서 걸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자, 명종은 “아뢰 대로 하라”라고 전교하고,<sup>74)</sup> 12월에는 경복궁을 중수하면서 전각의 액자와 대보잠, 칠월편, 역계를 쓴 李滉에게 熟馬 1필을 내렸다.<sup>75)</sup>

선조 원년 12월에 이황이 정이의 사잠을 손수 써서 올리자, 선조는 정서하여 병풍을 만들라고 명하고, 좌우에 놓고 조석으로 성찰하였다고 한다.<sup>76)</sup>

인조 원년 5월에는 홍문관으로 하여금 홍범편을 써서 들여 병풍을 만들라고 명하였다.<sup>77)</sup>

66) 『明宗實錄』 권3, 明宗 원년 4월 辛卯.

67) 『明宗實錄』 권3, 明宗 원년 4월 癸巳.

68) 金魯는 仁宗의 誌文을 썼던 인물이다.

69) 『明宗實錄』 권3, 明宗 원년 4월 乙卯.

70) 『明宗實錄』 권3, 明宗 원년 5월 丙辰.

71) 『明宗實錄』 권9, 明宗 4년 12월 庚子.

72) 『明宗實錄』 권17, 明宗 9년 10월 己卯.

73) 抑戒는 『詩經』 大雅 蕩之什에 실려 있으며, 衛武公이 周厲王을 비난하고 또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지은 시이다.

74) 『明宗實錄』 권17, 明宗 9년 11월 戊午.

75) 『明宗實錄』 권17, 明宗 9년 12월 庚辰.

76) 宣祖誌文.

효종 2년 8월에는 홍문관 유신으로 하여금 夙興夜寐箴을 써서 올리고 尙房에서 이를 병풍으로 만들라고 명하였다.<sup>78)</sup> 숙흥야매잠은 송나라 陳栢이 지은 것으로, 이황의 성학십도 가운데 10도에 숙흥야매잠도가 들어 있다. 여기서 숙흥야매는 『시경』의 小雅 小宛篇의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진백의 잠은 그 구절을 인용해 아침에 닭이 울어 일어날 때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지런히 힘써야 할 일과 마음가짐을 기술하였다. 이에 앞서 선조 원년 12월에는 충청도관찰사 盧守愼이 자기가 찬정한 『夙興夜寐箴註解』를 선조에게 올리자,<sup>79)</sup> 왕명에 의해 교서관에서 간행되었다.<sup>80)</sup>

한편 영조 22년 11월에는 영조는 유신들을 불러 숙흥야매잠과 성학십도를 강하도록 하고,<sup>81)</sup> 이 책의 3번째 간행에서는 영조 22년에 왕명에 의해 黃景源이 쓴 영조의 御製 序文이 첨부될 정도로 영조는 숙흥야매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특히 숙흥야매잠은 성균관에서 한 달에 세 번 강론하는 책 가운데 한 책인 『古鏡重磨方』 중 한 편이었다.<sup>82)</sup> 『고경중마방』은 이황이 옛 성현들의 箴, 銘, 贊 77수를 모은 책이다.

또 효종 4년 2월에 옥당의 沈之漢과 洪處厚가 왕명에 의해 무일편과 빈풍칠월편을 병풍에 써서 올리자 馬裝 각 1部씩을 내려 주었다.<sup>83)</sup>

현종 5년 6월에 熙政堂<sup>84)</sup>에서 승지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리 張善徵이 강을 하다가 대보잠에 이르자, 현종은 어좌 뒤에 있는 병풍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대보잠이라고 하였다. 이에 수찬 吳斗寅은 “병풍에 다 잠을 쓰는 것은 항상 눈이 그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니, 상께서

77) 『仁祖實錄』 권2, 仁祖 원년 5월 乙未.

78) 『孝宗實錄』 권7, 孝宗 2년 8월 庚午.

79) 『宣祖修正實錄』 권2, 宣祖 원년 12월 乙亥.

80) 이 책의 초고본은 노수신이 진도에 유배 중이던 명종 9년경에 이루어졌다.

81) 『英祖實錄』 권64, 英祖 22년 11월 庚子.

82) 『正祖實錄』 권50, 正祖 22년 11월 戊子.

83) 『孝宗實錄』 권10, 孝宗 4년 2월 丙寅.

84) 창덕궁의 崇文堂은 성종이 26년 동안이나 일상적으로 거처하거나 집무를 보던 곳인데, 연산군은 연산군 2년에 부왕에 대한 감정으로 熙政堂으로 개명하였다(『燕山君日記』 권20, 燕山君 2년 12월 辛巳).

는 마땅히 깊이 유념하셔야 한다”라고 하였다.<sup>85)</sup>

또 현종 6년 10월에 영의정 鄭太和가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주상께서 무일편을 병풍에 써서 항상 좌석 오른쪽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늘警省하여 마음속에 잊지 않는다면 매우 좋겠다”라고 하였다.<sup>86)</sup>

숙종 원년 2월에 주강에서 尹鑄가 역계를 병풍에 써서 좌우에 두고 살피기를 청하자, 李夏鎭으로 하여금 써서 바치라고 명하였다.<sup>87)</sup>

영조 12년 정월에 보덕 趙漢緯, 익찬 趙龜命이 세자궁에 文王世子等編을 抄하여 쓴 병풍 2좌를 올렸다.<sup>88)</sup>

영조 38년 12월에 장령 韓必壽가 무일편을 정밀하게 베껴 좌우에 두고 항상 보는 바탕으로 삼기를 청하자, 홍문관의 장으로 하여금 무일편을 서서 병풍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sup>89)</sup>

철종 원년 5월에 철종은 御製十條書를 써서 병풍으로 만들었는데, “부모에게 순종한 이는 上等人이요, 임금을 섬김에 충성을 다한 이는 상등인이며, 어른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아드리는 이는 상등인이고, 형제간에 화목한 이는 상등인이요, 남녀의 분별이 있는 이가 상등인이고, 뉘우치면 고칠 줄 아는 이는 상등인이며, 처자만을 아끼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이는 상등인이요, 주색에 빠지지 않는 이는 상등인이다. 위 10조 중에서 한 가지라도 행하지 못함이 있으면 또한 下愚人이라고 할 것이라”라고 하였다.<sup>90)</sup>

이처럼 왕들은 성찰용 글씨병풍에 『서경』의 洪範篇과 無逸篇, 『시경』의 豳風七月篇과 抑戒篇, 『大學衍義』의 序文과 表, 齊나라 太公의 丹書, 당나라 魏徵의 十漸疏, 송나라 王巖叟의 洪範三德論, 당나라 張蓋古의 大寶箴,<sup>91)</sup> 송나라 程頤의 四箴, 송나라 陳栢의 夙興夜寐箴,<sup>92)</sup> 송

85) 『顯宗改修實錄』 권11, 顯宗 5년 6월 壬寅.

86) 『顯宗實錄』 권11, 顯宗 6년 10월 乙亥.

87) 『肅宗實錄』 권2, 肅宗 원년 2월 丙午.

88) 『英祖實錄』 권41, 英祖 12년 정월 丙辰.

89) 『英祖實錄』 권100, 英祖 38년 12월 癸丑.

90) 『哲宗實錄』 권2, 哲宗 원년 5월 癸卯.

91) 공민왕도 柳爰廷에게 대보잠을 강의 시키고, 왕이 손수 그의 초상을 그리고 그의 이름과 자를 써서 주었다(『高麗史』 권44 世家44 恭愍王 22

나라 范浚의 心箴, 우리나라 崔淑生·成夢井의 九箴, 당나라 李紳·聶夷中·李濱의 傷田家詩를 썼다. 특히 철종은 자신이 지은 御製十條書를 병풍에 써서 성찰하였다.

이를 왕별로 살펴보면 태조는 홍범편, 정종은 사잠, 태종은 『대학연의』 서문과 표, 성종은 단서, 사잠, 상전가시, 대보잠, 십점소, 연산군은 무일편, 빈풍칠월편, 중종은 구잠, 대보잠, 홍범삼덕론, 사잠, 인종은 사잠, 심잠, 무일편, 빈풍칠월편, 명종은 빈풍칠월편, 억계편, 무일편, 선조는 사잠, 인조는 홍범편, 효종은 숙흥야매잠, 무일편, 빈풍칠월편, 현종은 대보잠, 무일편, 숙종은 억계편, 영조는 무일편, 철종은 어제십조 서였다.

전체 31건 중에서 무일편이 6건, 사잠이 5건, 빈풍칠월편이 4건, 대보잠이 3건, 홍범편·억계편이 2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1건이다. 이처럼 무일편, 사잠, 빈풍칠월편이 많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중에서 무일편은 유교 王道論의 핵심적인 전거로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 궁중 서병으로 가장 많이 제작된 것이다. 다행히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조선 말기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무일편 10폭 서병이 전하고 있다. 바탕은 비단이고, 병풍 각 폭의 크기는 197.0×53.3cm로 궁중에 걸맞은 대병이다.<sup>92)</sup>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에는 趙孟頫가 황제의 명을 받고 쓴 빈풍칠월편의 刻石 33장이 남아 있다. 재질은 호상 석회질 대리암이며, 첫 장의 크기는 세로 30.0~30.3cm, 가로 18.4~19.9cm, 두께 5.3~5.4cm이다.<sup>94)</sup>

이밖에 중종비 章敬王后에게는 歷代后妃鑑戒詩序, 사도세자에게는 文王世子等編을 써서 성찰토록 하였다.

년 4월 己亥).

92) 국립고궁박물관에는 20세기 전반 朱源榮이 쓴 숙흥야매잠 서병이 전하는데, 이 서병에는 小學題辭와 敬齋箴이 함께 들어 있다(국립고궁박물관, 2012, 『宮中書畫』, 290~295쪽).

93) 국립고궁박물관, 위의 책, 296~297쪽.

94) 국립고궁박물관, 2011, 『조선왕실의 刻石』, 244~277.

## 2. 그림 병풍

당나라 玄宗은 무일편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성찰을 하였다고 전하고,<sup>95)</sup> 고려 태조 왕건도 『訓要』에서 “周公은 큰 성인으로써 무일 한 편을 成王에 올려 그를 경계하였으니 마땅히 그 사실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에 항상 보고 자기를 반성하라”라고 훈계하였다.<sup>96)</sup> 조선시대 왕들도 이처럼 귀감이 될 만한 것들을 병풍에 그려 놓고 성찰을 하였다.

즉, 태종 2년 4월에는 예조판서 金瞻이 飭風圖를 바치자 內廐馬를 내려 주었다.<sup>97)</sup> 또 태종은 명하여 전대의 본받을 만한 일을 벽에 그리게 하였다.<sup>98)</sup> 3년 정월에는 영사평부사 李居易가 武王이 箕子에게 홍범을 묻는 그림을 올리자, 이거이에게 鞍馬를 내려주었다.<sup>99)</sup> 또 13년 12월에는 書筵官이 병풍을 만들어, 『孝行錄』에서 뽑아 그림을 그리고 李齊賢의 贊과 權近의 註를 그 위에 썼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자 세자가 忠寧大君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였다. 충녕대군이 즉시 풀이하였는데 그 뜻이 曲盡하였다고 한다.<sup>100)</sup> 이 병풍은 세자를 위한 孝子圖屏風이다.

세종 6년 11월에 세종은 “周公의 飭風이라는 詩<sup>101)</sup>와 無逸이라는

95) 『成宗實錄』 권199, 成宗 18년 정월 庚午. 당나라 賢相이던 宋廣平은 無逸의 그림을 바쳤고, 송나라 大儒였던 眞德秀도 飭風의 그림을 바쳤다고 하는 것을 보면(『成宗實錄』 권244, 成宗 21년 9월 丁卯),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많이 유행한 것 같다.

96) 『고려사』 권2 世家2 太祖 26년 4월.

97) 『太宗實錄』 권3, 太宗 2년 4월 戊寅.

98) 『肅宗實錄』 권23, 肅宗 17년 11월 壬戌.

99) 『太宗實錄』 권5, 太宗 3년 정월 乙未. 태종 16년 7월에는 북경에서 돌아온 知敦寧府事 韓長壽를 廣延樓에서 세자와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술을 베풀어 위로하였는데, 술이 취하자 태종은 풍악을 그치게 하고 趙末生을 불러 洪範의 陰陽의 이치를 講論하게 하였다(『太宗實錄』 권32, 太宗 16년 7월 戊戌).

100) 『太宗實錄』 권26, 太宗 13년 12월 乙亥.

101) 『시경』의 國風 飭風에 실려 있는 飭風七月詩의 飭은 지금의 陝西省 邠州이다. 武王의 아들 成王은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숙부인 周公 丹이 冢宰로서 섭정이 되어 정치를 맡아서 했다. 주공은 어린 왕을 가르치

書는 거울삼을 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다르니 민간에서 농사짓는 괴로움과 부역하는 고생을 달마다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경계되는 말을 써서 보는데 편하게 하여 영구히 진하려고 한다”라고 하였다.<sup>102)</sup> 여기서 세종이 우리나라 풍속이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농사짓는 모습을 그리라고 한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 15년 3월에 濼水縣 온천으로 거동할 때 樂生驛 앞뜰에서 유숙하였는데, 경기감사 南智 등은 大殿에게는 農圃屏風 1좌, 중궁에게는 蠶圖屏風 1좌, 동궁에게는 孝子圖屏風 1좌를 올렸다.<sup>103)</sup> 낙생역은 오늘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감사가 이처럼 병풍들을 준비하였다가 올린 것이다.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농민의 수고로움을 잊지 말라고 교훈적 의도에서 출발한 耕織圖는 안락한 궁중생활에 젖어 있는 통치자로 하여금 농부와 누에치는 여인들의 어려움을 이해시켜 스스로 근검절약하게 하고 바른 정치를 하도록 힘쓰게 하기 위한 鑑戒的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경작도는 『시경』의 豳風七月篇을 그린 빈풍칠월도를 모범으로 하여 체계화시킨 것으로 耕作圖와 蠶織圖로 이루어졌다. 앞서의 농포병풍은 경작도를 그린 병풍이고, 잠도병풍은 잠직도를 그린 병풍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작도는 씨뿌리기(浸種), 논갈이(耕), 거친 씨레질(耜耨),

기 위해 옛 조상인 后稷과 公劉의 風化를 시로 지어 이것을 빈풍이라 이름 짓고 樂師로 하여금 언제나 왕의 곁에서 왕에게 들려주도록 했다고 한다. 七月詩는 王業을 말하는 시라고 한다. 주공이 管叔과 蔡叔의 변을 만나서 후직과 공류의 風化의 유래를 말하여 왕업을 닦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가르치려 한 것이라고 한다. 豳風七月詩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농가의 어렵고 괴로움을 궁궐에서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림으로 만들어 보고 살피려는 것이다(『成宗實錄』 권200, 成宗 18년 2월 甲申).

102) 『世宗實錄』 권26, 世宗 6년 11월 丙戌. 세종 11년 5월에는 세종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성균관에 행차하여 명륜당에서 4백 명에게 시험을 보였는데 贊成 權近이 올린 豳風七月圖의 箋을 본떠서 출제하였다(『世宗實錄』 권44, 世宗 11년 5월 辛未).

103)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3월 戊寅.

고운 씨레질(秒), 고무래질(碌礪), 씨뿌리기(布秧), 거름주기(淤陰), 모 찌기(拔秧), 모심기(插秧), 애벌매기(一耘), 두벌매기(二耘), 세벌매기(三耘), 물대기(灌溉), 벼베기(收刈), 벗단쌓기(登場), 도리깨질(持穗), 벼까부르기(箕揚), 맷돌갈기(礱), 방아짚기(舂碓), 채거르기, 창고들이기(入倉) 등이 들어 있다.

한편 경직도는 남송 때 時於潛의 현령을 지낸 樓璣이 고종에게 바치기 위해 처음으로 그렸다고 하며, 樓璣耕織圖는 연산군 4년에 명으로 갔던 正朝使 權景佑가 가져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경작도 21장면과 잠직도 45장면들이 그려져 있고, 각 장면마다 오언율시의 耕織詩를 전서체로 써 각 장면의 왼편에 배치하였다. 앞서의 세종 때의 경직도는 이보다 앞서는 『시경』의 빈풍칠월편을 그린 빈풍칠월도를 바탕으로 한 경직도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경직도의 양식은 세종 연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세종 15년 8월에는 경연에서 세종은 “내가 빈풍칠월도를 보고 그것으로 해서 농사짓는 일의 힘들고 어려움을 살펴 알게 되었는데, 나는 보고 듣는 것을 넓혀서 농사일의 소중한 것임을 약간 알지만 자손들은 깊은 궁중에서 성장하여 논밭 갈고 곡식 가꾸는 수고로움을 알지 못할 것이니, 그것이 가탄할 일이다. 예전에는 비록 궁중의 부녀자들이라도 모두 누에치고 농사짓는 책을 읽었으니, 關風에 모방하여 우리나라 풍속을 채집하여 일하는 모습을 그리고 찬미하는 노래를 지어서, 상하 귀천이 모두 농사일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서 영원한 세대까지 보아 알게 하고자 하니, 너희들 집현전에서 는 널리 본국의 납세, 부과금, 무역, 농업, 잠업 등의 일을 채집하여 그 실상을 그리고 거기에 노래로 찬사를 써서 우리나라의 본보기 될 七月詩를 만들라”라고 명하였다.

이에 지신사 安崇善은 “신이 敬器圖를 얻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보오니 역시 꽤 많은 수양이 됩니다. 대체로 世家의 자손만 해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유덕을 입어서 부양으로 성장하여 오히려 농업과 잠업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궁궐의 안

에만 깊이 있어서 어찌 아래 백성의 농촌 고생을 알겠습니까. 분부하  
신대로 칠월시를 모방하여 그림 편찬이 이루어지면 한 때에만 유익할  
뿐 아니라 실로 만대의 미담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자, 세종은 “그렇  
다”라고 답하였다.<sup>104)</sup>

단종 2년 정월에 집현전 梁誠之가 皇極治平圖를 편찬하여 바쳤다.  
양성지의 序文에는 “정치를 하는 방도와 성현이 교훈으로 내린 말씀과  
經史의 흥망의 자취와 祖宗의 經國濟世한 법을 차례로 고찰하고 方寸  
의 마음을 되풀이 하여 皇極의 方位에 의거하여 治平의 小圖를 만들  
어 바치니, 綱이 모두 19개인데 그目は 91개이며, 어좌의 오른쪽에  
걸어두고 매양 아침저녁으로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sup>105)</sup> 이처럼  
양성지는 어린 나이의 단종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要諦를 뽑아  
올린 것이다.

성종 3년 10월에 경연에서 강을 마치자, 사간 金永堅이 아뢰기를  
“人君은 깊은 궁에서 출생하여 부하고 귀한 데에서 성장하므로 농사짓  
는 어려움, 백성의 기쁜 일과 슬픈 일을 알지 못한다. 이리하여 예전  
의 帝王은 『서경』의 無逸과 『시경』의 邇風을 유념하지 않는 이가 없  
었고, 혹은 벽 위에 그림으로 그려서 걸어 놓고 보는 사람도 있었으니  
원컨대 진하게서도 유념하라”고 하였다.<sup>106)</sup>

성종 6년 11월에는 畵工에 명하여 殷나라 戊乙, 衛나라 宣公, 晋나  
라 靈公, 宋나라 康公, 齊나라 車昏侯, 陳나라 後主, 陳나라 靈公, 吳王  
夫差 등의 사적을 그려서 병풍을 만들게 하고 文臣을 택하여 그것에  
대한 시를 지어서 바치게 하였다. 이러한 제왕의 악함을 경계할 만한  
것을 그린 병풍에 지중추부사 成任에 명하여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여러 신하들이 지은 시를 그 위에 쓰게 하였다.<sup>107)</sup> 이는 惡君屏에 해  
당된다. 12월에 석강에서 『宋鑑』을 강하다가 무일로 그림을 만드는데  
에 이르러서, 시강관 李孟賢이 아뢰기를 “무일과 빈풍은 모두 백성의

104)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 8월 癸巳.

105) 『端宗實錄』 권10, 端宗 2년 정월 己卯.

106) 『成宗實錄』 권23, 成宗 3년 10월 甲午.

107) 『成宗實錄』 권61, 成宗 6년 11월 壬申.

일을 말한 것으로, 宋璟, 孫奭이 모두 무일로써 그림을 그려서 임금께 올렸는데, 이는 인군이 마땅히 보고서 반성하게 한 것"이라고 하자, 성종은 이와 같은 일은 그림을 만들어 보게 할 만하다고 하였다.<sup>108)</sup>

성종 7년 8월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전대에 경계할 만한 사적을 이미 병풍(屏障)으로 그려 놓았는데, 권할만한 사적이 있으면 지금 택하여 아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sup>109)</sup> 10월에는 현명한 임금과 현명했다가 暗君이 된 이와 賢妃의 사적을 3개의 병풍에 그려서 문신으로 하여금 제목을 나누어 시를 짓게 하고 장령 朴孝元, 응교 柳洵, 진사 成聘壽에게 명하여 사적과 시를 그 위에 쓰도록 하였다. 明君屏에는 神農圖, 帝堯圖, 帝舜圖, 大禹圖, 成湯圖, 商高宗圖,<sup>110)</sup> 周文王圖, 武王圖, 漢文帝圖, 唐太宗圖가, 先明後暗君屏에는 吳夫差圖, 漢武帝圖, 晉武帝圖, 唐玄宗圖, 唐德宗圖가, 賢妃屏에는 周文王后妃圖, 周宣王姜后圖, 齊孝公夫人圖, 楚樊姬圖, 漢元帝馮昭儀圖, 漢成帝班婕妤圖, 漢明帝明德馬皇后圖, 唐太宗文德長孫皇后圖, 宋仁宗光獻曹王后圖, 宋英宗宣仁高皇后圖가 들어 있었다.<sup>111)</sup>

여기서 역대의 聖后와 賢姬를 뽑아 병풍에 그리게 한 것은 宮闈의 법도를 바르게 하고 내외의 일을 삼가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sup>112)</sup> 이 해는 바로 성종이 親政에 들어갔던 해이므로 성종은 이에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다. 현비도병풍을 사용했던 왕비는 결국 폐비되어 사사되고, 후일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을 불러오고 말았다. 또 이 시기는 성리학의 발달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풍조가 일던 시기로 왕비 윤씨의 폐비와 사사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였다.

중종 6년 5월에 정원에 하교하기를 “지금 경직도를 보니 그림과 詩文만 실려 있어 보기에 불편하니, 항상 관람하려고 하니 이것으로 3좌를 만들어 들이라”라고 명하였다.<sup>113)</sup> 이에 8월에 圖畫署에서 경직도병

108) 『成宗實錄』 권62, 成宗 6년 12월 庚子.

109) 『成宗實錄』 권70, 成宗 7년 8월 辛卯.

110) 高宗은 상나라 20대 왕인 武丁이다.

111) 『成宗實錄』 권72, 成宗 7년 10월 辛卯.

112) 『中宗實錄』 권70, 中宗 26년 3월 丁未.

풍 3좌를 바치자, 중종은 시문까지 써서 올리도록 명하였다.<sup>114)</sup>

중종 39년 5월에는 북경에 간 호조참의 李明珪는 명나라 학사 宋濂이 序를 짓고, 趙孟頫가 칙명을 받아 시문을 쓴 빈풍칠월도를 구하여 왕에게 바쳤다.<sup>115)</sup>

인종은 孝子圖와 耕織圖를 항상 진설하여 놓고 성찰하였다.<sup>116)</sup> 진술한 것처럼 궁중에서의 효자도병풍은 주로 세자가 사용하던 병풍이었다. 효자도는 효에 관한 고사를 남기고 있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림에 고사의 내용을 함께 적어 놓기도 하였다. 즉, 귀감이 될 만한 설화를 그림으로 그려 병풍으로 꾸며 가까이 두고 보면서 자녀들의 교육이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신의 효의 지침으로 삼았다.

선조 원년 12월에 李滉이 聖學十圖를 올리자 선조는 “학문하는데 매우 긴절한 것이니 병풍으로 만들라”라고 명하여 이를 보면서 반성하였다.<sup>117)</sup> 성학십도는 당시 조정애 나가 있던 이황이 17세인 선조에게 筍子和 함께 태극도 등 10개의 圖解와 함께 聖學의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다. 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과 마음가짐에 대해 이황 자신이 평생 동안 공부하며 쌓아 온 학문 내용을 정리하여 선조에게 올린 것이다. 여기에는 「太極圖」, 「西銘圖」, 「小學圖」, 「大學圖」, 「白鹿洞規圖」, 「心統性情圖」, 「仁說圖」, 「心學圖」, 「敬齋箴圖」, 「夙興夜寐箴圖」 등이 들어 있다. 선조는 2년 9월에 성학십도를 印出하여 40여 권을 신하들에게 頒賜하였다.<sup>118)</sup>

광해군 5년 2월에는 吳翊과 趙希逸에게 성학십도를 써서 병풍을 만들도록 명하였다.<sup>119)</sup>

---

113) 『中宗實錄』 권13, 中宗 6년 5월 甲戌.

114) 『中宗實錄』 권14, 中宗 6년 8월 庚辰.

115) 『中宗實錄』 권103, 中宗 39년 5월 己亥.

116) 『明宗實錄』 권1, 明宗 즉위년 7월 辛巳.

117) 『宣祖修正實錄』 권2, 宣祖 원년 12월 乙亥.

118) 『宣祖實錄』 권3, 宣祖 2년 9월 甲戌.

119) 『光海君日記』 권63, 光海君 5년 2월 癸巳.

인조 원년 5월에는 홍문관으로 하여금 성학십도를 써서 들여 병풍을 만들라고 명하고,<sup>120)</sup> 또 4년 9월에는 이황의 天命圖를 써서 들이라 하였다.<sup>121)</sup>

현종 9년 11월에는 좌참찬 宋浚吉이 太極陰陽圖를 그려 올리고 工人에게 명하여 병풍으로 꾸미게 하여 좌우에 놓고 아침저녁으로 살피고 완상하라고 하였다.<sup>122)</sup>

숙종 6년 10월에도 玉堂官을 소대하였을 때 洪萬容이 옥당관으로 하여금 성학십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어전에 바치게 하여 睿覽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숙종은 이를 허락하였다.<sup>123)</sup>

또 숙종 17년 11월에 備忘記를 내리기를 “진대의 선하여 본받을 만하고 악하여 경계할 만한 것 각각 8가지를 그 종류에 따라 그려서 두 병풍을 만들되, 병풍은 각각 8쪽으로 하여 앉은 자리 가까이 펴두고 성찰을 돕게 하려하니, 옥당으로 하여금 감독하여 만들게 하고, 主文하는 신하로 하여금 각각 그 일에 따라 律詩를 지어 병풍 쪽 머리에 써서 바치게 하라”라고 명하였다.<sup>124)</sup> 여기서 선한 사람은 帝堯, 帝舜, 夏禹, 商湯, 商中宗,<sup>125)</sup> 周文王, 周武王, 周宣王이고, 악한 사람은 夏少康, 漢成帝, 漢哀帝, 漢靈帝, 晉武帝, 唐玄宗, 唐懿宗, 宋徽宗 등 모두 16사람이었다. 즉, 善君屏과 惡君屏을 만든 것으로 일종의 故事圖屏風이다.

이조참관 李玄逸이 善惡을 그려서 병풍을 만들라는 명에 따라 각각 그 일에 대한 조목을 따라 贊을 짓고 첫머리에 서문을 써서 바치자, 豹皮 한 벌을 내려 주었다.<sup>126)</sup> 18년 2월에는 옥당에서 이 선악도 병풍을 올렸다.<sup>127)</sup> 이러한 선악도 병풍은 선한 것은 道가 같아 興起하게

120) 『仁祖實錄』 권2, 仁祖 원년 5월 乙未.

121) 『仁祖實錄』 권14, 仁祖 4년 9월 戊戌.

122) 『顯宗改修實錄』 권19, 顯宗 9년 11월 乙卯.

123) 『肅宗實錄』 권10, 肅宗 6년 10월 己亥.

124) 『肅宗實錄』 권23, 肅宗 17년 11월 壬戌.

125) 中宗은 상나라 7대왕인 太戊이다.

126) 『肅宗實錄』 권23, 肅宗 17년 11월 己巳.

127) 『肅宗實錄』 권24, 肅宗 18년 2월 丙申.

되고, 악한 것에 있어서는 같은 일이 있을까 경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숙종 23년 10월에는 교리 尹趾仁이 상소하기를 “마침 농사짓고 길쌈하는 경직도를 얻었기에 묘사하여 병풍을 만들게 해서 세자에게 내러 주어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알도록 하려고 하였는데, 功費가 너무 많이 든다느니 한 때의 玩好하는 것이라느니 말을 하면서 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였다.<sup>128)</sup>

영조 44년 12월에 內局에서 입시하였을 때 영조는 “전에 경직도의 首章을 보니 옛 해의 御製가 있었는데, 이 경직도는 경종이 동궁 때 春坊에서 그려 올린 것이다. 내가 경종 원년에 동궁에 들어간 뒤에 이 경직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단에 공경히 御詩로 화답하였는데, 끝 句에 모름지기 이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보라”라고 하였다고 하였다.<sup>129)</sup>

정조 23년 12월에 부수찬 金熙周가 상소하여 “성학십도의 舊板이 이미 오래되어 희미하게 닳아 없어졌으리라고 여겨지므로 內閣으로 하여금 크고 작은 두 가지 판본을 다시 새기게 하여 큰 판은 주상의 병풍을 꾸미도록 하고 작은 판은 찍어 내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하자, 정조는 내각으로 하여금 품치토록 하였다.<sup>130)</sup> 이 때쯤이면 판본의 성학십도는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성학십도병풍은 민가에서도 우연만한 선비들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량은 많은 편이었고, 대부분 붓으로 그린 것이었다.

고종 5년 8월에 홍문관에 성학십도를 그린 병풍을 바치라는 명을 내리자, 시독관 李晩耆가 이황의 후손인 전 정언 李晩滢의 집에 있던 옛날 병풍을 바쳤다.<sup>131)</sup>

이처럼 성찰용 그림병풍에서 왕들은 『서경』의 무일편을 그린 無逸圖, 『시경』의 빈풍칠월편을 그린 飗風七月圖, 耕織圖,<sup>132)</sup> 梁誠之의 皇

128) 『肅宗實錄』 권31, 肅宗 23년 10월 戊辰.

129) 『英祖實錄』 권111, 英祖 44년 12월 辛未.

130) 『正祖實錄』 권52, 正祖 23년 12월 壬子.

131) 『高宗實錄』 권5, 高宗 5년 8월 壬戌.

極治平圖, 이황의 聖學十圖·天命圖, 송준길의 太極陰陽圖, 明君圖, 先明後暗君圖, 善君圖, 惡君圖를 사용하였다.

이를 왕별로 살펴보면 태종은 빈풍칠월도, 세종은 무일도와 빈풍칠월도, 단종은 황극치평도, 성종은 무일도, 빈풍칠월도, 악군도, 명군도, 선명후암군도, 중종은 빈풍칠월도, 경직도, 인종은 경직도, 선조·광해군은 성학십도, 인조는 성학십도, 천명도, 현종은 태극음양도, 숙종은 성학십도, 선군도, 악군도, 고종은 성학십도를 사용하였다. 21건 중에서 성학십도 5건, 빈풍칠월도 4건, 무일도·경직도·악군도는 2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1건이다. 이처럼 성학십도와 빈풍칠월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서 빈풍칠월도는 누숙경직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 성종비 齊憲王后(폐비윤씨)는 賢妃圖屏風, 태종의 세자인 양녕대군과 중종의 세자인 인종은 孝子圖屏風, 경종의 세제인 영조는 耕織圖屏風을 사용하였다.

### III. 洪範 屏風

#### 1. 狀態

연전에 서울 鍾路區 嘉會洞 古家에서 나온,<sup>133)</sup> 본 홍범병풍은 본래 12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충북대학교박물관에는 2폭만이 남아 있다. 매 폭의 크기는 길이 155cm, 폭 57cm이다. 이 정도의 크기로 12폭이라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상상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크기이다. 글자는 楷書로 字徑은 6~7cm

132) 民畫에 대한 개념을 화원, 문인사대부, 승려화가를 제외한 무명화가들의 작품, 정통화를 제외한 그림, 俗畫로 부르던 生活畫를 민중의 그림인 민화로 본다면(徐熙乾, 1985, 「民畫」, 『박물관대학』, 朝鮮日報社, 147쪽), 경직도도 민화로 그린 것이 많다.

133) 嘉會洞은 옛 한옥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인데, 1970년대 강남지역이 개발되면서 가회동 주민들이 강남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때 가회동에서 전해 오던 고미술품들이 가게로 많이 나왔다.

정도이고, 매 폭은 1行을 21자로 하는 5행 105자이다.

바탕은 울이 굵고 고르지 못한 천으로 중국산 비단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佛畵에 쓰인 비단과 유사점이 있어, 이 비단의 제작 시기가 매우 올라감을 알 수가 있다. 글씨는 玉版宣紙로 배접되어 있었다. 병풍을 해체하여보니 약 200년쯤에 마지막으로 병풍을 꾸밈음이 확인되었다. 이때 이미 중간 중간이 낙질된 채 4폭 만이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약 200년쯤 마지막으로 병풍을 꾸미기 이전에 이미 3차례에 걸쳐 改修가 있었던 흔적도 확인되었다.

千惠鳳 선생은 글자에 刀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板本이 아니고 肉筆로 보았다. 그러나 任昌淳 선생은 판본인 경우 글자가 마모될 때 글자의 테두리 색은 비교적 진하게 남아 있으나, 테두리 안쪽은 탈색이 심해지는 것을 근거로 판본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판본으로 언급하여 두겠다.

바탕이 천이기 때문에 먹물이 잘 묻지 않아 세월이 오래 되면서 글자의 탈색이 심해지자, 글자를 뚜렷하게 하고자 후대에 여러 차례 개칠한 흔적이 보인다. 崔完秀선생은 개칠한 것도 글자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수준 높은 서예가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 2. 內容

### 1) 두 번째 폭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 威用六極. 一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

그 첫째가 五行이요, 둘째는 몸을 닦아 행하여야할 五事이며, 셋째는 민생을 후하게 하여야 하는 八政이고, 넷째는 하늘의 뜻과 맞게 해야 하는 五紀이며, 다섯째는 근본을 세우는 皇極을 세우는 일이고, 여섯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 쓰는 三德이며, 일곱째는 疑惑을 밝혀 분

명하게 하는 稽疑이고, 여덟째는 治政의 좋고 나쁨을 잘 살펴 생각하는 庶徵이며, 아홉째가 권하여야 할 五福과 징계하여야 할 六極이다. 五行은 一은 말하되 水요, 二는 말하되 火요, 三은 말하되 木이요, 四는 말하되 金이요, 五는 말하되 土이다. 水는 말하되 潤下하고, 火는 말하되 炎上하고, 木은 말하되 曲直하고, 金은 말하되 從革하고, 土는 이에 稼穡하다. 潤下는 鹹을 하고, 炎上은 苦를 하고, 曲直은 酸을 하고, 從革은 辛을 하고, 稼穡은 甘을 한다.

## 2) 다섯 번째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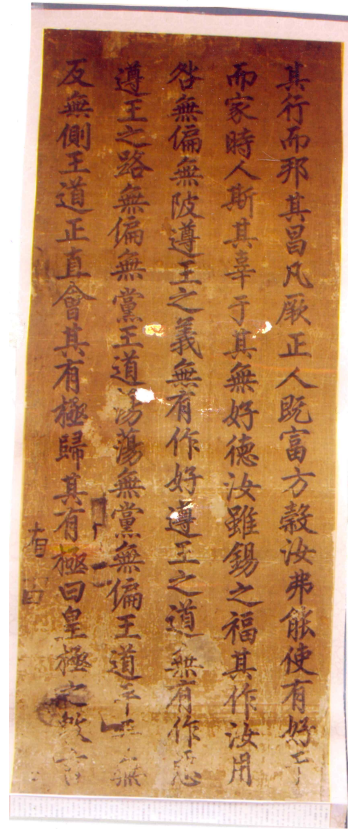
無虐熒獨 而畏高明. 人之有能有爲 使羞其行. 而邦其昌. 凡厥正人 既富方穀. 汝弗能使有好于而家 時人斯其辜. 于其無好德 汝雖錫之福 其作汝用咎. 無偏無陂 尊王之義. 無有作好 遵王之道. 無有作惡 遵王之路.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無反無側 王道正直. 會其有極 歸其有極. 曰 皇極之敷言 (是彝是訓. 于帝其訓. 凡厥庶民 極之敷言 是訓是行 以近天子之光. 曰 天子作民父母 以爲天下王).

熒獨을 확대하고 高明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能함이 있으며 하는 것이 있는 이를, 하여금 그 行을 나아가게 하면 그대 나라가 그 창성하리라. 무릇 그 正인은 이미 부자 되게 하고자, 바야흐로 착하게 할지니, 그대 능히 하여금 그대의 家에 좋게 함이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에 그 죄하리라. 그 德 좋지 않은 이에 그대 비록 복을 내릴지라도, 그 그대 허물을 쓰는 것이 되리라. 치우침이 없고 기웁이 없이 하여, 王의 義를 좇으며, 좋아함을 하지 아니하여 왕의 道를 좇으며, 싫어함을 하지 아니하여 왕의 路를 좇으라. 치우침이 없으며 偏僻됨이 없으면, 王道가 蕩蕩하며, 편벽됨이 없으며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平平하며, 反함이 없으며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正直하리니, 그 極에 모여 그 극에 돌아가리라. 말하되, 임금이 極으로 敷衍한 말이, 이 彝이며, 이 訓이니, 帝에 있어 그 가르침이라. 무릇 그 庶民이 極의 부연한 말을, 이제 가르침으로 하여 이에 행하면, 그로써 天子의 빛에 가까워, 말하되,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되어, 그로써 천하의 왕이 되리

라.



<그림 1> 홍범병풍  
두 번째 폭



<그림 2> 홍범병풍  
다섯 번째 폭

### 3. 書者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홍범병풍의 書者는 원의 趙孟頫(1254~1322)이다. 조맹부의 松雪體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후 杳村 李崑(1297~1364)의 뒤를 이은 송설체의 흔적은 釋 性澄의 「文殊寺藏經碑」(1327)의 陰記, 恭愍王의 「安東雄府」 편액글씨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sup>134)</sup> 그러나 송설체는 당시 사대부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일반에 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조선시대가 되면 송설체는 점차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여말선초에 활약한 權近, 崔興孝, 河演, 申檣 등의 글씨에서 그러한 경향이 보인다.<sup>135)</sup>

성리학 이념에 합당한 체제정비를 하던 세종대의 집현전 학사들은 송설체를 근본적으로 연구하여 수용하는 여유를 보이게 되면서 송설체는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즉, 집현전 학사들과 더불어 일선에 나서 이를 주도한 인물이 詩文·書畫·琴棋에 정통하여 雙三絶로 꼽히던 安平大君 李瑢(1418~1453)이었다. 세종의 아낌을 받으며 당시의 예술계를 이끌었던 그는 천부적인 자질과 궁중에 소장된 書畫眞蹟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의 中國書畫 수장품 가운데 26점의 조맹부 글씨가 들어 있을 정도로 조맹부의 글씨에 심취하였다.

『夢遊桃源圖卷』에 실려 있는 그의 대표작인 「夢遊桃源記」는 송설체의妍媚함을 뛰어넘은 경쾌한 필법이며, 行草로 쓴 「再送嚴上座歸南序」나 「小苑花開帖」, 「擣衣篇」에서 맑고 빼어난 서풍을 보이고 있다.<sup>136)</sup> 이에 따라 당대 藝苑은 그의 서체를 좇아 송설체 일색이 되어가게 되었다. 그의 형인 문종(1414~1452)도 송설체를 바탕으로 淸勁하고 생동감 있는 書風을 이루었다. 집현전 학사이자 姨從兄弟였던 姜希顔(1418~1453)도 그를 방불하게 추종하고 있었으며, 같은 집현전 학사인 南秀文(1408~1443), 朴彭年(1417~1456), 李瑄(1417~1456), 成三問(1418~1456), 徐居正(1420~1488), 成任(1421~1484) 등이 모두 그를

134) 崔完秀, 1987, 「韓國書藝史綱」, 『澗松文華』 33, 58쪽.

135) 李完雨, 1996, 「조선초기의 서예」, 『한국사』 27, 국사편찬위원회, 571쪽.

136) 李完雨, 위의 글, 571~572쪽.

따랐으며,<sup>137)</sup> 『夢遊桃源圖卷』, 『瀟湘八景圖詩卷』에서 송설체의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

단종 원년의 癸酉靖難으로 송설체를 정착시킨 인물들이 다수 사망하였지만, 송설체는 姜希顔, 徐居正, 成任, 姜希孟 등에 의해 이어졌고, 당시의 지식층들이 거의 이를 추종하였다. 成宗(1457~1494) 연간에 이르러 송설체는 더욱 확산되어 조선 제일의 서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성종은 集賢殿學風의 부활을 염원하고, 안평체를 私淑하여 그의 글씨는 안평대군의 글씨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송설체를 잘 썼다고 한다. 이처럼 성종이 한 서체를 추종하자 많은 文士들도 따라 쓰게 되었으며, 성종 연간의 신진학자인 任熙載, 金希壽, 成世昌 등이 모두 송설체를 따랐다. 이들은 성종대에 길러진 신진사대부로 金宗直系의 정통 性理學統을 이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밖에 鄭蘭宗, 安琛, 任士洪, 朴耕, 申公濟 등도 송설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서풍을 이루어 갔다.<sup>138)</sup> 그 후 송설체는 조선중기에도 지속적으로 토착화하였다가, 18세기 이후 일부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다 퇴조하였다.

#### 4. 摹刻 時期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에서 조맹부의 글씨를 摹刻 印出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이들 모각본을 法帖으로 삼아 글씨 공부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세종 15년 윤 8월에는 조맹부의 글씨를 인쇄한 歸去來辭를 쓴 족자를 여러 신하에게 하사하였다.<sup>139)</sup> 문종 즉위년 11월에 안평대군이 조맹부의 眞草千字의 書法板本을 바치자, 문종은 명하여 校書館에 주어 사람들이 模印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sup>140)</sup> 단종 2년 4월에 시강

137) 崔完秀, 앞의 글, 59~60쪽.

138) 李完雨, 앞의 글, 572쪽.

139) 『世宗實錄』 권61, 世宗 15년 윤8월 癸亥.

140) 『文宗實錄』 권4, 文宗 즉위년 11월 庚戌.

관 河緯地가 경연에서 단종이 쓴 淸淨玄虛라는 글씨가 佛書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하자, 단종은 조맹부의 법첩을 내어 보이면서 조맹부의 글씨라고 하였다.<sup>141)</sup>

세조 원년 10월에 세조는 鑄字所에 전교하여 교서관에서 소장한 集古帖 중에서 조맹부의 證道歌, 眞草千字, 東西銘과 永膺大君의 집에 소장하고 있는 조맹부의 赤壁賦 등의 書本을 인쇄하여 이를 성균관으로 보내서 학생들로 하여금 楷範으로 삼게 하라고 명하였다.<sup>142)</sup> 또 세조 3년 정월에도 세조는 교서관에 전교하여 조맹부가 쓴 證道歌, 紫芝歌의 木版은 장부로 만들어 간수하고,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도록 명하였다.<sup>143)</sup> 세조 3년 7월에 思政殿에서 輪對할 때 세조가 조맹부의 서첩을 꺼내어 보이고 書法을 의논하였다. 영의정부사 鄭麟趾가 本朝 사람의 서법은 모두 속되어서 조금도 옛날과 같지 않다고 하자, 세조는 법첩을 널리 편다면 마땅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44)</sup>

세조 5년 6월에 세조는 예조에 傳旨하기를 “내가 법첩을 많이 인쇄하여 나라 안에 널리 반포하려고 하니, 만약 조맹부의 眞草千字文 등을 바치는 사람은 소원대로 후하게 상을 줄 것이고, 병풍, 족자에 쓴 법첩 같은 것은 摹刻한 후에 주인에게 돌려 줄 것이니, 이런 뜻으로 중외에 曉諭하라”라고 하였다.<sup>145)</sup> 세조 5년 8월에 첨지중추원사 宋處儉을 일본국의 통신사에 보낼 때의 예물 속에 조맹부 서체의 證道歌 2권이 있었다.<sup>146)</sup> 세조 10년 10월에 도승지 盧思愼이 조맹부의 친필 병풍을 바치자 內廐馬 1필을 回賜하였다.<sup>147)</sup>

성종 11년 4월에 奏聞使 魚世謙이 북경에서 돌아와 조맹부의 書簇

141) 『端宗實錄』 권11, 端宗 2년 4월 己亥.

142) 『世祖實錄』 권2, 世祖 원년 10월 癸亥.

143) 『世祖實錄』 권6, 世祖 3년 정월 戊子.

144) 『世祖實錄』 권8, 世祖 3년 7월 丁卯.

145) 『世祖實錄』 권16, 世祖 5년 6월 甲戌.

146) 『世祖實錄』 권17, 世祖 5년 8월 壬申.

147) 『世祖實錄』 권34, 世祖 10년 10월 庚子.

4軸 등을 올리니, 명하여 毛馬粧을 내려주게 하였다.<sup>148)</sup> 또 성종 15년 5월에 상당부원군 韓明澮가 그의 손자 韓景琦를 위하여 법첩을 인쇄하기를 청하면서 문종의 어필과 조맹부의 진필을 바치자, 성종은 진교하기를 “문종이 쓴 글씨는 外間에 놓아둬는 마땅하지 아니하니, 내가 마땅히 內府에 두겠으며 법첩을 인쇄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sup>149)</sup>

또 성종이 조맹부의 진본을 구하라고 명하자, 달성군 徐居正이 병풍 한 벌을 바치고, 행사직 金紐가 죽자 한 축을 바쳤다.<sup>150)</sup> 성종 21년 3월에 부사맹 辛殷尹이 조맹부의 眞筆 簇子 1쌍을 바치자, 성종은 豹皮 2장, 胡椒 5두, 蘇木 20근을 하사하였다.<sup>151)</sup> 또 尹孝孫이 중국 조정에 서 산 조맹부의 書簇 2쌍을 바쳤다.<sup>152)</sup>

이처럼 세조는 조맹부의 글씨에 관심을 갖고, 證道歌, 眞草千字, 東西銘, 赤壁賦, 紫芝歌 등을 인출하였다고 하였다. 충북대학교 소장의 홍범병풍도 이즈음에 모각 인출된 것은 아닌가 싶다.<sup>153)</sup> 본 홍범병풍은 특별히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모각할 때 생기는 刀痕을 공을 들여 없애고, 정성들여 비단에 인출한 정황이 보여 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출할 때 병풍 한 벌을 더 만들어 왕실에서 사찰에 시주를 하였는데, 이것이 천안에 있는 사찰에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sup>154)</sup>

148) 『成宗實錄』 권116, 成宗 11년 4월 壬戌.

149) 『成宗實錄』 권166, 成宗 15년 5월 己丑.

150) 『成宗實錄』 권166, 成宗 15년 5월 丁酉.

151) 『成宗實錄』 권238, 成宗 21년 3월 乙卯.

152) 『成宗實錄』 권238, 成宗 21년 3월 丙辰.

153)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조맹부가 쓴 빈풍칠월시 각석도 이때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154) 任昌淳선생의 교시이다.

## IV. 맺음말

성찰용 글씨병풍에서 왕들은 『서경』의 洪範篇과 無逸篇, 『시경』의 爾風七月篇과 抑戒篇, 『大學衍義』의 序文과 表, 齊나라 太公의 丹書, 당나라 魏徵의 十漸疏, 송나라 王巖叟의 洪範三德論, 당나라 張蒞古의 大寶箴, 송나라 程頤의 四箴, 송나라 陳栢의 夙興夜寐箴, 송나라 范浚의 心箴, 우리나라 崔淑生·成夢井의 九箴, 당나라 李紳·聶夷中·李漬의 傷田家詩가 쓰여 졌다. 특히 철종은 자신이 지은 御製十條書를 병풍에 써서 성찰하였다. 또 중종비 章敬王后에게는 歷代后妃鑑戒詩序, 사도세자에게는 文王世子等編을 써서 성찰토록 하였다.

성찰용 그림병풍에서 왕들은 『서경』의 무일편을 그린 無逸圖, 『시경』의 빈풍칠월편을 그린 爾風七月圖, 耕織圖, 梁誠之의 皇極治平圖, 이황의 聖學十圖·天命圖, 송준길의 太極陰陽圖, 明君圖, 先明後暗君圖, 善君圖, 惡君圖를 사용하였다. 또 성종비인 齊憲王后(폐비유씨)는 賢妃圖屏風, 태종의 세자인 양녕대군과 중종의 세자인 인종은 孝子圖屏風, 경종의 세제인 영조는 耕織圖屏風이 사용되었다.

성찰하는 내용은 벽에 붙여서 볼 수도 있고, 판에 새기거나 족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고 볼 수도 있으며, 병풍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병풍이 많이 활용되었다. 왕들은 궁궐을 옮겨 거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왕들의 성찰용 병풍은 경복궁 康寧殿, 창덕궁 大造殿과 같은 왕의 침전을 비롯하여, 왕이 평상시에 거처하면서 신하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정사를 돌보던 경복궁의 思政殿과 사정전에 딸린 丕顯閣, 창덕궁의 宣政殿 및 熙政堂과 같은 便殿에서 사용하였다.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홍범병풍은 매 폭의 길이 155cm, 폭 57cm로, 본래가 12폭이었다면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공간이 비교적 좁은 민가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는 병풍이다. 특히 홍범은 천하를 다스리는 大法이기 때문에 왕실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병풍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홍범은 태조 6

년에 曹熙에게 써서 올리라 하여 궁중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중요시 하였다.

조선 초에는 조정에서 원나라 조맹부의 글씨를 많이 摹刻 印出하였는데,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 홍범병풍도 조선 초에 모각 인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홍범병풍이 유명한 조맹부의 글씨인 만큼 楷範으로 삼을 만 하다고 하겠다.

[논문접수 : 2015.10.20, 심사시작 : 2015.10.25, 심사완료 : 2015.11.10]

주제어 : 궁중병풍, 경직도, 홍범편, 무일편, 억계편

<Abstract>

## The folding Screen of Joseon Dynasty for introspection

Min, Deok-shik

The content of the examination and also view attach to the wall, or create a scroll inscribed on the plate placed on the wall may see made into a folding screen. This has been used a lot of screens on the way. Because the king's residence was moved to the palace.

Screens of this king, as well as the precipitation of a royal room, Gangnyeongjeon of Gyeongbokgung, Daejojeon of Changdeokgung palace.

Screens are the servants of the king consulted with the everyday affairs and shelter, which was used in the pyeonjeon such as huijeongdang of the affair dolbodeon of the late Joseon Dynasty palace sajeongjeon.

Chungbuk National Museum of red tiger screen is the length of the sheet width 155cm, width 57cm The original can not help but marvel at its size is 12 wide bangdaeham yeotdamyeon.

Red tiger screen can be seen in particular was a special folding screen that is available throughout the royal family since the great law governing the world.

Key words : Royal Screens, Gyeongjikdo, Hongbeompyeon, Muilpyeon, Eokgyepyeon.